

■제1독서: 지혜서의 말씀입니다. 12,13.16-19

13 만물을 돌보시는 당신 말고는 하느님이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께서는 불의하게 심판하지 않으셨음을 증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16 당신의 힘이 정의의 원천입니다. 당신께서는 만물을 다스리는 주권을 지니고 계시므로 만물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17 정녕 당신의 완전한 권능이 불신을 받을 때에만 당신께서는 힘을 드러내시고 그것을 아는 이들에게는 오만한 자세를 질책하십니다. 18 당신께서는 힘의 주인이시므로 너그럽게 심판하시고 저희를 아주 관대하게 통솔하십니다. 당신께서는 무엇이든지 원하시는 때에 하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19 당신께서는 이렇게 하시어 의인은 인자해야 함을 당신 백성에게 가르치시고 지은 죄에 대하여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희망을 당신의 자녀들에게 안겨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 주님, 당신은 어질고 용서하시는 분이시옵니다.

○ 주님, 당신은 어질고 용서하시는 분, 당신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자애가 넘치시나이다. 주님, 제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애원하는 제 소리를 들어 주소서. ◎

○ 주님, 당신이 만드신 민족들이 모두 모여 와, 당신 앞에 엎드려, 당신 이름에 영광을 바치리이다. 당신은 위대하시며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 당신 홀로 하느님이시옵니다. ◎

○ 주님, 당신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신 하느님, 분노에는 더디시나 자애와 진실은 넘치시나이다. 저를 돌아보시어 자비를 베푸소서. ◎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8,26-27

형제 여러분, 26 성령께서는 나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올바른 방식으로 기도할 줄 모르지만, 성령께서 몸소 말로 다 할 수 없이 탄식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27 마음속까지 살피보시는 분께서는 이러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느님의 뜻에 따라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찬미받으소서. 아버지는 하늘 나라의 신비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 알렐루야.

■복음: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3,24-43

그때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군중에게 24 말씀하셨다. “하늘 나라는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에 비길 수 있다. 25 사람들이 자는 동안에 그의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26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에 가라지들도 드러났다. 27 그래서 종들이 집주인에게 가서, ‘주인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습니까?’ 하고 묻자, 28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하고 집주인이 말하였다. 종들이 ‘그러면 저희가 가서 그것들을 거두어 낼까요?’ 하고 묻자, 29 그는 이렇게 일렀다. ‘아니다. 너희가 가라지들을 거두어 내다가 밀까지 함께 뽑을지도 모른다. 30 수확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두어라. 수확 때에 내가 일꾼들에게, 먼저 가라지를 거두어서 단으로 묶어 태워 버리고 밀은 내 곳간으로 모아들이라고 하겠다.’” 31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렸다. 32 겨자씨는 어떤 씨앗보다도 작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도 커져 나무가 되고 하늘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33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 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밀가루 서 말 속에 집어넣었더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34 예수님께서는 군중에게 이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를 들지 않고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35 예언자를 통하여 “나는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리라. 세상 창조 때부터 숨겨진 것을 드러내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된 것이다. 36 그 뒤에 예수님께서 군중을 떠나 집으로 가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와, “밭의 가라지 비유를 저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37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르셨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사람의 아들이고, 38 밭은 세상이다. 그리고 좋은 씨는 하늘 나라의 자녀들이고

가라지들은 악한 자의 자녀들이며, 39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악마다. 그리고 수확 때는 세상 종말이고 일꾼들은 천사들이다. 40 그러므로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태우듯이, 세상 종말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41 사람의 아들이 자기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은 그의 나라에서 남을 죄짓게 하는 모든 자들과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을 거두어, 42 불구덩이에 던져 버릴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43 그때에 의인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 **영성체송:** 당신 기적들 기억하게 하시니,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로우시다. 당신 경외하는 이들에게 양식을 주신다.

■ 공지사항

- 2구역 월모임: 7월 19일 (주일) 성당 내.
- 병자성사 등 성사가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구역장님 또는 사제에게 알려 주십시오. 원하시는 때에 성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멕시코 과달루페 성모 발현지 순례자 모집 (2027년 1월 중순 예정)

■ 우리들의 정성 (07/12/2026)

▪ 미사 봉헌금: \$445.00 | ▪ 교무금: 이영규 (7-8), 조윤경 (4-9), 최민해 (7), 김진국 (7), 엄영준 (6-7), 김춘환 (PU)

교무금은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교회가 하느님 경배, 사도직과 애덕의 사업 및 교역자들의 합당한 생활비에 필요한 것을 구비하도록 교회의 필요를 지원하고자 하는 신자의 의무입니다. 가톨릭교회는 적어도 한달 중 하루의 수익은 하느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헌하자는 취지로 자신의 한달 수입의 1/30 (3.3%) 이라도 책정하자고 제안합니다.

납부시 교무금 봉투에 ‘한글 이름’, ‘세례명’, ‘금액’, ‘납입하는 월’을 정확하게 적으신 후 교무금함에 넣어 주세요. 납입 내역은 다음 주 주보, 월별로 게시판에 공지됩니다.

July 19, 2026 연중 제 16 주일

성령께서 몸소 말로 다 할 수 없이 탄식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십니다(로마 8,26).

The Spirit itself intercedes with
inexpressible groanings(Rm 8,26).



천주교 인디애나폴리스 한인 성당

Korean Catholic Church of Our Lady of Holy Rosary in Indianapolis

- 성 당 : 7536 E 46th St. Indianapolis, IN 46226
- ☎ (317) 542-0863 (문자메시지 가능하며, 선호합니다)
- 홈페이지 : indykcc.org | 이메일 : indykcckorea@gmail.com
- 사제관 : 7556 E 46th St. Indianapolis, IN 46226
- 사목회장 : 공성현 니콜라오 | 담당신부 : 김병조 베드로
- 주일미사 일요일 오전 11시

■ 전례 봉사자

	연중 제16주일(7/19)	연중 제17주일(7/26)	연중 제17주일(8/2)
해설	김성숙 M.막달레나	정석훈 마태오	이상진 프란치스코
독서	최아영 조윤경	황현성 손안세	이동현 유리나
복사	박한준 라파엘 엄유상 바오로	이하은 레베카 류지수 엘리사벳	
반주	공승윤 수산나	최아영 아네스	
제대	안소희 클로틸다	조윤경 로사	
예물	류지안 남고은	엄유상 엄유하	